

존재와 존재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살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도 모르게 보내는 암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습이 달라도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라는 뜻의 암호입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2030 미래발전 전략 TFT KICK-OFF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1월 10일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TFT를 발족하고 KICK-OFF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채석래 의무부 총장 겸 의료원장이 자리해 미래발전전략 TFT 출범을 축하해 주었으며, ‘미래의 병원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외부 강사가 90분간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권범선 병원장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2030 미래발전 전략과 핵심사업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제시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TFT 출범을 통해 경영진과 의료진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문사 40회 월천회 금 5백만 원 기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1월 20일 대구 용화사에서 운문사 40회 월천회 스님들로부터 금 5백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에는 지담스님, 지현스님, 동암스님, 우진스님이 참석했다.

월천회는 불교 활동과 관련한 복지, 교육, 포교 등에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운문사 40회 졸업생 가운데 뜻을 같이하는 모임으로 정기적인 회비를 걷어 일정액이 모이면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3차 회향처 선정과 후원 금액 조정을 주제로 한 회의를 통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의료 장비 구입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김명숙 대외협력홍보팀장은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의료포교도량으로 발전하는데 귀한 마중물이 될 것이며 월천회의 아름다운 회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고양시산림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센터장 김희선)는 11월 9일 고양시 산림조합(조합장 김보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경기도민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산림 숲 체험 서비스의 발굴, 연계, 원에 활동, 관련 특강, 집단프로그램, 사업지원, 홍보 등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11월 30일에는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고양시 산림조합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도심 속 가까운 숲으로 떠나는 여행, 힐링 포레스트’ 행사가 산림생태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원에 체험, 숲길 산책, 해먹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과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재의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고양시 산림조합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을 토대로 센터 내담자들의 정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활의학과 이태헌 전공의, 아시아연하장애학회대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2년 차 이태헌 전공의(지도교수 : 박진우)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연하장애학회학술대회에서 ‘Recommendation for the level of adhesiveness in a dysphagia diet’ 주제로 우수 포스터 발표 상을 받았다. 이날 수상자인 이태헌 전공의는 기존의 연하곤란식 연구가 음식의 농도와 점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연구는 음식의 접착성이 연하곤란 식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입증했다.

이태헌 전공의는 수상 후 “음식의 특성을 고려한 추천은 환자들의 식사 경험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으며, 이는 임상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크고 연하곤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른둥이 가족 만남의 장 열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센터장 김도현)는 지난 11월 18일 ‘이른둥이 가족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졸업한 33주 미만의 쌍둥이들을 비롯해 약 70명의 이른둥이와 가족들 포함 총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의료진들의 손에 안겨 작은 존재로 남아 있었던 이른둥이들이 이제 아장 아장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며, 학교생활까지 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 아이는 8살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모아온 용돈 1백만 원을 기부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 기금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새 생명을 위한 특정목적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도현 센터장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른둥이를 만나왔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과 희망을 품었다”며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